



양기술개발 안규철, 주식회사싸이언 이윤숙, (주)재신정보 한정규, (주)에스에스티코퍼레이션 서수현, Fugen21c 기술컨설턴트 장태휘, (주)센추리 백현수, 용성전기 주식회사 최필구, (주)케이지에스테크 이완복, (주)군도기술산업 서도원, (주)코라솔 양선애, (주)육건건설 이기분, 유한회사 정진플랜트 이경선, 슈어소프트테크(주) 배현섭, 김준 두온시스템 김영수, 삼진공작(주) 황선복, (주)대신테크젠 황인성, 피케이밸브(주) 윤동수, (주)삼진이엔지 이장영, 한국차폐기술(주) 정신검, (주)에이블이엔씨 정사교, 위프코(주) 김호용, 부양산업주식회사 이정훈, (주)미래엔 손광영, 다우산업개발(주) 신준식, (주)스마트이앤씨 황종근, 하이에어코리아(주) 김근배, 미래자동차 윤계천, 한보기공(주) 임종희, 한라산업(주) 김갑동, 삼양해운(주) 정행주, (주)해광산업 정영섭, (주)엔에스이 김대일, (주)지케이옥시 유상열, (주)우리기술 노갑선, 앤스코(주) 이종포, (주)태일송풍기 이춘성, (주)엔에스컴퍼니 남세우, 신명전자 조용화, 용광후렉시블공업 이미호, 유니스이테크(주) 구분광, 효림산업(주) 김종태, 비엔에프테크놀로지(주) 서호준, (주)유진티엠씨 박태국, 한국엔지니어링서비스 정성일, 대경기술주식회사 임영하, 삼오기계(주) 정재성, (주)이엠씨 김홍범, (주)한국화이바 조용준, 한국바란싱 문숙현, 정일기공 정동진, 페이브텍(주) 유석준, 은호산업 송영민, (주)케이피씨엠 안장홍, (주)이공감 장광현, (주)비츠로테크 유병연, 비에이치아이(주) 우종인, 조원래 (주)휴비스위터 신인율, (주)신신기계 김동수, (주)HLB Power 임창윤, 김중원, (주)성일에스아이엠 우양호, 우창수, 성화산업(주) 노준형, 한국원자력기술(주) 고병령, (주)이엔이 박헌희, 국제전기 김봉현, 유호전기공업(주) 유인창, 한국찬, 와이피피(주) 백종만, 김명현, (주)삼공사 정해용, 정진석, 미미라이팅(주) 송인숙, (주)우진 이성범, 이재상, 유림기술(주) 전택수, (주)비츠로시스 이상호, 김형진, (주)와이즈산전 이상훈, 일신전자통신(주) 안혁태, 인터뱅크 문찬수, 이투에스 윤주형, 경성정기 신현기, 성일엔지니어링 정대웅, 세안정기 장길화, 지에스중공업 윤여성, 동남유공압 이재관, 엠텍 이광용, 삼부정밀 최형오, 이엠씨 김홍범, 영진테크원 강성현, 에이스메탈 배창수, 에네스지 양종대, 세연기업 신동훈, 일신밸브 김현조, 청우하이드로 안상구, 플로우솔루션 한기웅, 정우산기 황윤하, 선봉코리아 주식회사 허윤영, 삼흥기계 김홍규, 주은ENG 김창진, 재은산업 김정민, 부전에스피티 이상민, 비케이전자(주) 유병기, 주식회사 티보그 김은숙, 대경기술주식회사 임영하, 알티피코리아주식회사 이영렬, 유저스(주) 류석진, (주)대진기업 최준수, 대원물류시스템 임광식, (주)백산에스엔케이 김병화, 김신우, 금천공업 박분선, 현성정밀 한연현, 대한중기공업(주) 정성일, 맥스텍 조성용, 현승지엔티 장병부, 용마테크 박정철, 에스엠테크 최남호, 서진인스텍 김상수

## 전국 원자력 학생 호소문

전국 13개 원자력학과 학생회는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원자력 학생 호소문’을 발표했다. 현재 원자력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학부생은 3638명, 대학원생은 857명으로 상당히 큰 규모에 속한다. 그 자리에서 학생 대표들은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수급과 같은 국가적 문제는 정치적 이해 관계 없이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탈원전에 관한 정책을 정상적인 공론화를 통해 진행해주시요.”

지난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원전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7일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겠



다고 밝히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에너지 안보, 환경, 기후변화, 미래 산업 경쟁력 등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백년대계의 원전 정책 결정이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채 졸속 추진되었고, 특히 신고리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시민 배심원단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뜻을 밝힙니다.

탈원전에 관한 정책을 졸속한 행정이 아닌 정상적인 공론화를 통해 진행해주시시오.

탈원전 선진국이라 일컫는 독일의 경우 원전 폐지에 대한 논의에서 탈핵을 선언하는 데까지 약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스위스의 경우에도 33년간의 공론화와 5차례에 걸친 국민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긴 여정에서 원자력 전문가는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충분한 정보 전달이 있었기에 심층적인 담론 형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충분한 시간도, 적법한 절차도, 전문적 지식 공유도, 어떠한 담론도 없이 어려운 결정을 쉽게 내리려 합니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에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원자력 공학도들은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꿈을 품고 원자력을 보다 안전하고 건설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자력을 배우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는 탈원전 정책의 방향은 우리 원자력 공학도가 연구하는 학문의 의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친환경적인 미래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원자력 공학도에 입학한 우리는 국가 지도자의 정책 결정 한번으로 꿈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일부 공학적이지 못한 언론의 추측성 기사, 원자력에 대한 공포 조장, 원전 세계 동향 등에 대한 사실 왜곡 등은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큰 불안감을 안기고 있으며 원자력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이라는 에너지원이 정치적 이념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그 평가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을 중시한다던 현 정부는 우리들의 이야기로부터 귀를 닫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비전문가로부터 정책을 조성하려 하는 현 정부의 태도가 과연 민주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기술적인 퇴보의 길을 걷고, 불완전한 에너지정책의 책임을 후 세대로 인가하는 현 탈핵정국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묻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의 융성과 안전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할 것이며, 정부의 현명한 솔선을 기다릴 것입니다. 🍌

2017년 7월 20일  
전국 원자력 대학생 연합